위로는네 자성불을 섬기고 아래로는 몸속의 중생들을 제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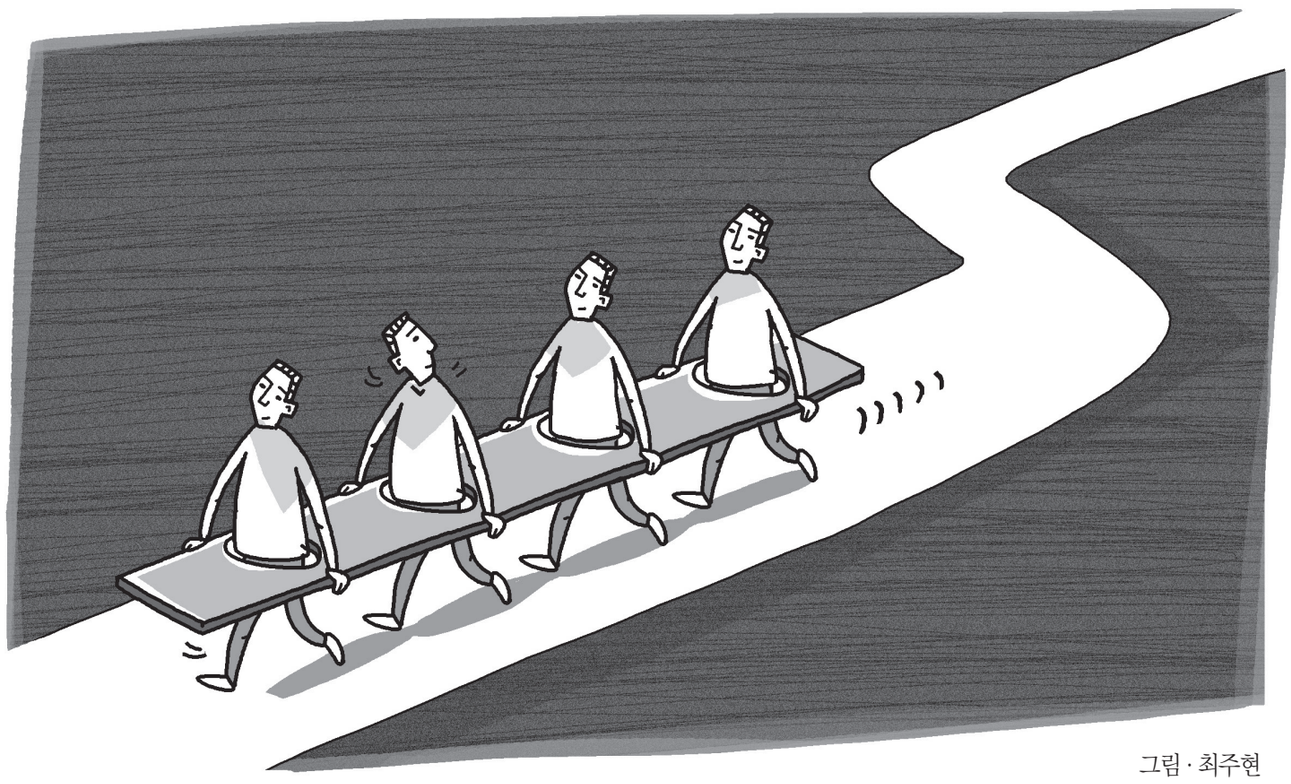
지난 호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리송하고 이해되지 않을 거예요. 태양도 은하계도 다 직결돼 있고 이 세상만사가 가설이 돼 있어서 그게 한 생각에 작용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태양이 새끼를 낳게 할 수도 있고 그 새끼가 어미가 될 수도 있고, 하하하…, 알을 낳을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태양을 팽창시킬 수도 있고 타 버리게 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잘 유지하고 나갈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모든 게 다,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수화풍에 감사한 줄 알아야 합니다. 공기도 감사하고 불도 감사하고 물도 감사하고 죄 감사한 겁니다. 아침 쇳송에 '오종대은 명심불망'이라고 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을 이끌고 나가는 왕의 은혜를 알아라. 우리를 낳아 준 부모의 은혜를 알아라. 국민의 은혜를 알아라. 이 '국민의 은혜를 알아라' 하는 거는 모두가 서로 주고 먹고사니까 말입니다. '사장(師長)의 은혜를 알아야 한다' 이거는 일체 만물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물이든지 초목이든지 모든 산천초목이 '나를 보고 나같이 살아라' 하고 설법을 해 주니까 말입니다. 목신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두가 '날 먹고 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 날 먹고 살면서도 나하고 둘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하고 설법을 한다 이겁니다. 말 없이 설법을 해요. '그러니까 근중한 줄 알고 아껴 먹어라.' 이러고 설법도 한다고요. '우리들을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막 내버리지 말고 귀중한 줄 알고 먹어라. 우리도 생명이 있는 거다.' 하고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은 흘러가는 대로 우리한테 설법을 해 준다 이겁니다. '우리가 흘러갈 때 큰 바위가 있으면 돌아간다. 거스르지 않고 돌아간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뚫고 나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모두 병들고 죽지 않느냐.' 하고 설법을 합니다. 허허허…. 그래 일체 만물이 다 설법을 해 줘요.

그러니 내 스승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나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아픔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고 내 자식 아님이 어딨습니까.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흘러나오면서, 쫓고 쫓기고 진화하면서 여기 가서 태어났다 저기 가서 태어났다 이쪽 자식이 됐다 저쪽 부모가 됐다 이러는데, 그렇게 수없이 흘러나왔는데 지금 당대의 부모 자식만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까 남의 부모도 내 부모같이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집에서 부모 노릇을 하다가 죽어서 이쪽 자식 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 집에서 떠나와서 이쪽 집의 자식 노릇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면 이쪽의 할아버지란 말입니다. 하하하…. 그런데 모르니까, 과거니까, 자기가 살아 있을 때 벌써 과거가 돼 버리고 현실이 돼 버렸는데,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지마는 이것을 다 공부해서 지혜롭게 되면 그때는 하나하나 체험을 하면서 돌아갑니다. 권투를 잘하는 선수가 조그만 애들 막 주먹질하는 걸 보고 피익 웃고 섰듯이 말입니다. '아이구, 그거 뭘 저런 걸 가지고…. 에이, 그냥 말할 것도 없구나!' 하고선 그때는 말수가 적어지죠. 공부를 하다 보면 말수가 적어지고 또 욕심이 적어지고 집착이 적어지고, 높고 낮고 이런 것에 집착이 적어지고 반항이 적어지고 남을 원망하는 게 적어지고, 매사 게 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냥 자꾸 개선이 되죠. 이렇게 해서 금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가 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인데 누구를, 형상을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또는 이 스님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습니까? 아니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세 가지가 다, 행과 말과 뜻이 똑같은 사람이라면,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따르라 이겁니다. 따르라! 믿는 것은 바로 자기 한마음 주인공만 믿어라 이거죠.

악업 선업, 업식이 자기한테 잔뜩 들어 있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벌써 현실에 자기가 끼고 있으니까 없는 거죠. 현실에 끼고 있으면서 미래로 자꾸 연결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단번에 이 자리에서 해결해 버려라 이겁니다. 업식으로 나오는 모든 거를 그저 거기다가 가차 없이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네놈한테서 해결을 할 수밖엔 없지 않느냐.' 하고 맡겨 놔요.

질문자1(여) 제가 살면서 서원을 세우기를 '나로 인해서 딴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하고, 단 하나의 악한 일도 하지 않겠다.' 발원하면서 걸어왔는데 부족하다 보니 어떻게 딴 사람에게 거슬리는 짓을 할 때가 많은가 봐요. 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께 질문합니다.

큰스님 한 가정에서 식구가 모여 살면서 생기는 제일 어려운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죠. 자손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말썽을 일으키는 수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어려운 문제가 많죠? 그냥 증오하면서도 말은 못 하고, 말을 하려니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냥 참다 참다 가슴이 멍이 들게 되는 수도 많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고 해서 그것을 거죽으로 "요놈의 새끼야, 왜 공부를 안 하느냐?" 남편이 그런다 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내 복장을 썩이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다면 항상 대립이 되기 때문에 쌍방이 업을 더 많이 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들이라는 것, 남편이라는 것이 전부 가설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인연줄의 가설입니다. 생명이 둘이 아니듯이 내 주인공과 저 주인공이 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식이나 남편이나 모두가 주인공 자체는 둘이 아니니까, 그저 주인공 당신만이 그렇게 안 하게끔 할 수 있고, 당신만이 공부 잘하게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여기서 불을 켜는 것과 같아서 저쪽에도 불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죽으로는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저 잘 이끌어 가면 따뜻한 데로 고이게 돼 있거든요. 애도 어른도 다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배부르게 먹을 데로 고여 들고,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데로, 부드러운 데로 고여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참, 아주 제일 좋구나.' 하고선 가정으로 얼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뒷면의 인연의 줄이, 법망의 줄이 이어져서 불을 켜 주니까,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불이 들어오니까 전부 마음이 바꾸어지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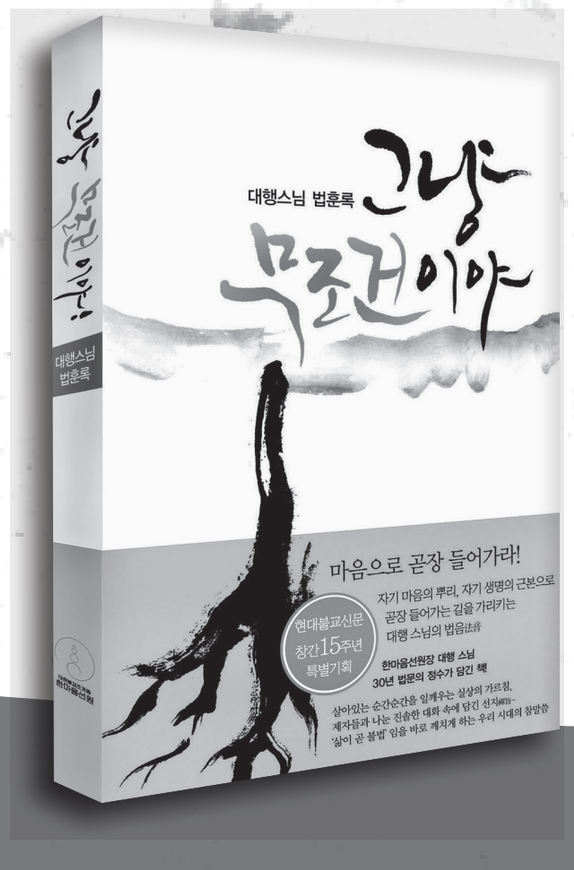
이런 분이 있었죠. 직장 일이 끝나도 집에 들어가고 싶질 않고 괜히 마음이 헛헛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 가서 술 한잔 흥건하게 먹고 집에 들어가는데도 다 귀찮고 다 메어다 패대기치고 싶고 그렇대요. 이것을 억지로는 못 하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는 그 분의 부인에게 그랬어요. "당신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당신 남편의 업이 미워. 그런데 당신의 업도 그 남편의 업도 둘이 똑같지? 어느 하나도 기울고 트는 게 없어. 보는 놈이나 하는 놈이나 똑같다 이거야." 하하하…. 그러니까 깡통은 깡통끼리 모였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 업을 모두 없애려면 남편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돌리고, 자식이 그렇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놓고 녹여라. 그러면 거기까지도 녹여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들어오더니 "내가 왜 이랬는지 몰라. 내가 괜히 술 먹어서 돈 없애고 세간 부수고…, 내가 미쳤나 봐. 여보, 나 참 미쳤나 봐." 그러고는 수박 한 덩이를 건네주면서 "이거 술 먹을 걸로 수박 사 왔지." 하하하. "아니, 소쿠리 하나만 부서져도 내 손해인데, 내가 또 사다 놓아야 될 텐데, 손해 나는 일을 괜히 했어." 그러고는 아주 우스워서 죽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날부터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아져서 잘 살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상구보리 하화중생 하라. 위로는 네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mahamall.co.kr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